

---

# 2019년 제9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2019.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2019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 일 시: 2019. 7. 11.(목) 14:00~18: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총 16건 23작품(조각 23작품)
- ◆ 결 과: 승인 12작품, 부결 11작품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 1번 안건: Forma-m7

-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연관성이 느껴지는 작품
- 돌 다루는 기술이나 기법에 문제없는 작가의 작품
- 정형적인 건물과 잘 조화되며 입체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정돈된 느낌
- 조형적 형태나 동일 요소의 반복적인 구조적 전개는 장식적이고 무리 없으나, 가격이 과다함
- 재료비, 인건비가 과다해 보임
- 작가 본연의 작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질서, 균형, 명료성의 메시지 존재
- 건물과 잘 어울림, 재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
- 작가의 예술세계를 확장시킨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음
-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작가의 기존 작품 연계 측면에서 무난해 보임. 다만, 작품에 있는 틈이 많아서 유지·보수 관리가 특히 필요해 보임
- 작가의 기존 작업과의 관계나 구현하는 숙련도는 무난하지만, 작품의 개념과 작품의 형상성에서 괴리가 있음
- 다소 투박한 느낌이 있어 아쉬움

- 독특한 리듬감이 있는 작품으로 개성이 돋보임
- 백대리석이라는 재질이 호감이 감

### □ 2번 안건: 소중한 가치 - 역사와 신화로부터

- 공공조형물의 전형성을 벗어난 신선함이 느껴짐
-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음
- 작가 작품의 연속성은 느껴짐
- 공간에 줄 수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음
-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생경한 고전주의 요소가 키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유명 고전 작품을 모티프로 패러디한 본 작업은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조형으로 작품 자체의 조형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남음
- 조각적 긴장감이라기보다 매우 위태로워 보이며 변화를 산만하게 추구한 느낌
- 익히 익숙한 조각상들의 해체와 조합을 통한 의도는 좋으나 너무 직설적인 조합과 장소와 맥락의 개연성이 떨어지며 매우 생뚱한 느낌
- 작가의 기존 작업에서 보이는 심플하면서 집중력 있는 구현이 아쉬움, 너무 설명적이고 의미를 과하게 부여한 듯함
- 다비드와 비너스 두 인물에 대한 다소 직설적이고 억지스러운 배치로 비추어짐. 특히 머리가 아래로 가 있는 형상이라 공공장소에서 불편한 인상을 줄 수도 있을 듯함
- 건축 공간과 작품이 조화를 이루지 못 함
- 오피스텔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음

### □ 3-1번 안건: 항상 즐거운 연인

- 밝은 이미지는 좋으나 조각적 긴장감이 부족하고, 콘셉트가 평이함
- 귀여운 형태이긴 하나 대중적이란 의미를 폭 좁게 잡은 것 같음
- 해학과 즐거움은 있으나, 조형에 대한 작가적 오리지널리티는 아쉽고, 가벼운 터치의 작품
- 표현 기법이 세련된 느낌은 아님
- 귀여움 이상의 개념을 느끼기 어려움
- 작품으로서의 의미전달이 약함
- 이해하기 쉽고 유머가 넘침
- 공간적 맥락이나 해석의 부재
- 경쾌하고 발랄해 주택 환경의 미술작품으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으나

- 다소 진부해 보이는 표현으로도 느껴짐
- 작가의 특성이 보이는 온화한 느낌의 작품

### □ 3-2번 안건: The complementary system 192

- 유지보수 문제 있을 듯함
- 공간과 어울림, 장소와 조화롭게 잘 어울림
- 장소 특성적이라는 측면에서 익숙한 형태의 조형물이 굳이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
- 작품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작품이지만, 비슷한 패턴의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공공 조형물로서 어떤 기능을 할지는 의문이 듭
-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익숙한 작품일 것 같음
- 비슷한 시각 환경을 다양하게 바꾸기에는 어려운 작품
- 작가의 개인 작업의 발전이기는 하나, 건축 조형물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패턴의 조형성이라 신선도 부족
- 밀도가 느껴지고, 신화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좋은 작품
- 기하학적인 조형성이 돋보이나 공간에서 유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반복되는 모티프의 구성에 따른 공명이 흥미로운 작업. 다만, 유사작업이 많아 작가적 개성이 아쉬운 부분
-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이미지를 선사하며 선적 요소의 반복이 역동적
-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조형물이라 봄

### □ 3-3번 안건: 생명의 씨앗 움:트다

- 건물과 조화롭다고 보기 어렵고, 형태감도 평이함
- 씨앗의 상상력이 단순해 보임
- 자연의 모습을 반추하게 함
- 동일 기법의 작품 다수, 규모의 미학이 필요할 듯함
- 형태적 조형이 흥미롭지 못하고, 기계적이고 작품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조형품
- 작가 전작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외에 매력은 없음
- 본인의 작품과 연계된 야외작품
- 구현된 형상이 씨앗, 움틈 보다는 오히려 충돌의 개념으로 더 강하게 다가옴
- 수경 시설 위에 설치되는 조형물로 씨앗 작품의 콘셉트와 제시하는 조형물,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일체감이 다소 약해보임
- 작가의 이전 작품들을 보면 노력을 해온 것이 느껴짐

- ‘새싹’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기에는 재질이 너무 차가워 보이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음
- 수경환경 위에 있어서 ‘싹’이라기보다는 물방울로 느껴짐

### □ 3-4번 안건: 바람이 머무는 공간

- 가장 자주 접하는 작품일 텐데 작품요소, 조형, 기법 등에 동시대적 마감이 아쉬움
- 전 심의 제출 작품과 같은 예술성이 아쉬운 작품. 해학적 위트 이상으로 내재되어야 할, 작품으로서의 심미적 매력이 보완 되었으면 좋겠음
- 통일감이 느껴지지 않고 장식적인 느낌이 강함
- 형태가 불필요하게 장식적임
- 요소들의 부조화와 형상의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짐
- 장식성이 강하여 예술적 깊이를 느끼기 쉽지 않음
- 너무 많은 요소들의 조합으로 산만하고 조형적 전달력이 약함
- 작품의 콘셉트와 타이틀, 작품설명, 최종 조형물간의 불일치가 커 보임
- 동물 및 씨앗 등의 표현에 새로움이 부족해 보임

### □ 4번 안건: Station

- SNS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참여를 이끌었다고 하나,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닌 이상 일부 이미지를 SNS에서 가져온다는 것만으로는 참여적이고 인터랙티브 하다고 할 수 없음. 실시간 업데이트 계획이라면 인터넷 모듈 사용 등에 기술 사양이 도서에 누락되어 보임
- 더군다나 도면상으로는 봉의 끝이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 지향성 스피커의 사운드가 아래쪽 관객에게 전달되기 힘들게 되어 있음
- 말 뿐인 ‘시민 참여 사진 제공’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행 계획 제시 필요
- 블랙미러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 대책이 충분해 보이지 않음
- 한중일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의미 있는 협업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작가들이 유입되어 공공미술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이번 위원회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이 기획은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운드의 내용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이상의 신선함을 주기는 부족함
- 이전에 비해 공간에서 느껴지는 조형적 짜임새가 좋아졌음
- 1차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그대로, 작가들의 공명과 화합된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메시지가 아쉬운 작품

- 건물과 잘 어울리는 내용과 동시대 미술의 성격을 잘 드러낸 작품
- 큐레이팅과 미디어, 조각의 새로운 시도가 매우 흥미로우며 벽 측의 작품은 건물의 공간과도 잘 어울리나 미디어 구의 작품은 기괴한 느낌과 거부감을 줌
- 기존 제안보다 짜임새 있는 연출, 하지만 블랙미러의 역할과 기능은 의문
-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인지에 대한 의문이 듦
- 미술관에서 텍스트 중심이고, 이미지적인 요소가 약함
- JTBC라는 방송국에 잘 어울리는 미디어 작품
- 자유, 평등이라는 주제와 서랍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활용한 어법 모두 진부하게 느껴짐
- 협업을 하긴 했지만, 제한적인 협업의 형식으로 보임, 한국작가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 아쉬움

## □ 5번 안건: 숲의 사계절

- 이전 작품보다 입체감이 보완되어 좋음
- 시각적 효과에 의존하는 것이 다소 아쉽지만 색다른 시도
- 이전 작품보다 많이 좋아졌음
- 주변 맥락과 잘 조화되는 작품
- 작품이 공간에서 조명장식으로 기능을 가지는 건 좋지만, 이외에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모호함
- 조형적 모티프가 갖는 작품으로서의 조형적 완성도가 부족함. 장식성에만 치우친, 애매한 편화작품 같은 느낌
-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야외 장식물적인 느낌이 강함.
- 작가의 기존 작품과의 연계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 야외 노출 개별 유닛 제작된 LED로 추가적인 보호 장치 없이 장기간에 걸친 유지 운영 및 보수가 우려됨
- 다소 장식적이긴 하나 대체로 무난함

## □ 6번 안건: 바벨(Babel)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잘 연계되고, 위례 지구의 역사성이 고려된 기획으로 보임. 다만, 작업의 콘셉트가 조형적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작가의 작품세계를 모르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명판의 설명도 불충분해 보임
-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에 색채를 줄 수 있을 것 같음
- 작품이라기보다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처럼 보일 것 같음. 조명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세운 느낌
- 공공미술로서의 느낌은 약함.
- 작품명(바벨)의 형태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함
- 색채감을 부여하여 신선함
- 작품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보임
- 야외작품으로서 내구성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바벨탑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 단순 유리 장식으로 보임
- 장식성만 두드러지는 조형 설치물
- 환경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고, 작품 자체적인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아쉬운 작품
- 작품가격 과다
- 기둥과 맞닿는 작품이라기보다 설치물로 인식됨, 기획력이 아쉬움
- 작품 자체는 흥미로우나 기둥 바로 옆에 배치하는 것에는 의문이 듦
- 바벨 스테인드 글래스 식물 등 차용된 요소들이 통합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체 조형이 주는 전달력이 약함
- 스테인드글라스의 효과적 연출을 위해서 위치 조정 필요



## □ 7번 안건: 바람이 준 선물

- 내용을 읽기 어려운 형식
- 지난번 작품이 더 좋음, 다소 장식성이 과해보임
- 지나치게 장식적
- 패턴과 모티프의 장식성은 있되, 메시지나 작품의 예술성 부족한 장식적 조형물
- 산만한 조형성, 조각적 긴장감 부족
- 산만한 구성과 작품의 역할에 대한 의문
- 귀여운 형태로 관객 친화적으로 보임
- 애매한 조형성
- 조형어법에 감성과 세련미가 추가되어야 할 듯
- 세련된 기법에 비해 내용이 약해보임
- 작가의 작품과 동떨어져 보임
- 편안한 느낌을 주는 무난한 작품

## □ 8번 안건: 새싹의 정기 • The vitality of the earth

- (권고사항) 작품의 설치효과를 높이고,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식재, 식수를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함
-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복잡한 느낌을 줄 것 같음
- 무거운 공공조형물의 관행을 벗어난 신선한 시도이기는 하나 공간에 비해 개수가 많은 듯, 과잉 이미지를 생산할 수도 있어 가격과 개수를 줄이는 것을 제안함
- 꽃과 검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시도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조형물의 표현이나 콘셉트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인상을 줌. 또한, 장식적 느낌이 매우 강함
- 좁고 긴 공간에 여러 개가 배치되는 게 산만해보이며, p.21의 사진으로 볼 때 옆 건물이 매우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도서에서 제시하는 이미지와 실제 구현은 상이해보임
- 공간과 무리 없이 어울리는 조형성, 장식성
- 작품 가격 과다
- 변경 전보다 많이 보완된 작품
- 2차원 평면에 높이를 부여한 방식, 작가의 이전 작품과 일관성은 있으나 다소 평이함
- 많이 반복되는 패턴, 컬러가 있는 게 나을 듯
- 건물 사이에 낀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건물에 빛 공해 요소가 되지 않을지 우려됨

## □ 9-1번 안건: 자라나는 보석의 정원 - Growing gemstone garden

- 유사작품이 다른 지역에 다수 설치됨
- 조명, 배경 등의 특성 상 미술관 같은 내부공간과는 잘 어울리지만, 외부공간에서는 작품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지 의문이 듦
-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조형성과 전달 의미가 너무 직설적
- 의도와는 달리 인위적인 구성이 강하게 드러나 일루전 제공이 안 됨
- 작품 자체 보다는 뒷면의 벽체와 단상이 여전히 작품을 돋보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작가의 기존 작업에 비해서는 다소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조형적 표현으로 아쉬움이 있음
- 주위 환경과 조화롭다고 보기 어려움
- 조각적 상상력이 아쉬움
- 형태가 반복적이고 평이함
- 다소 장식적이거나 무난
- 장식적 완성도는 있으나, 작가적 개성이나 작품의 예술성이 부족한 작품

## □ 9-2번 안건: illumination Bulb

- 지난 작품보다 좋음
- 무난하게 보완이 된 작품
- 작가가 개인전에서 보여준 작품에 더 가까워져 안정감이 느껴짐
- 장소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조각적 상상력을 제공하기에는 형상이 단조로워 아쉬움
- 밤의 형태는 좋을 수 있으나, 낮에는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을 듯함
- 외부에 설치하기에는 다소 밋밋할 수 있음
- 작품의 맥락성이나 조형성에 무리가 없는 작품
-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작품이나 그림자가 투영될 수 있는 면의 부재로 구의 조형만 남아 전달력이 약함
- 맥락의 비약, 벽면의 도상이 없을 때 작품의 개념 희석

### □ 9-3번 안건: Reading art

- 회화 조각 같은 느낌으로 신선함. 다만, 바다 원형 돌 패턴이 강하여 작품 감상을 떨어뜨려 작품이 돋보일 수 있는 바닥 디자인 필요
- 작품에 따라 주위 공간의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선인장의 텍스트를 조형화시켜 쌓아올린 경쾌하고 흥미로울 수 있는 작품이나 콘셉트 또는 콘셉트를 설명하는 텍스트에서 공공미술적 고려가 다소 부족해보임
- 설명문이 다소 어렵고, reading art의 타이틀인데 왜 cactus를 썼는지, 그 공간에 굳이 선인장을 세워야할 당위성 등 공간과의 맥락성이 아쉬움
- 산만한 구성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함
- 작가 작품의 연장선에서 제작된 의미가 있음
- 장식성은 무리 없으나, 작품으로서의 개성이나 작가로서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느껴져 아쉬운 작품
- 색이 산만하며 조형적 개성 부족
- 뒤브페 작품이 연상됨
- 바닥패턴이 작품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 10번 안건: 원심림

- **(권고사항) 정기적 유지보수 비용을 전체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새로운 형태의 작업이 공공미술로 설치된다는 것은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이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다만, 원 의도대로 설치가 이루어져야만 작품으로서 바람직함
-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작가의 건축과 공공예술의 형식에 대한 실험으로 의미있는 시도라 여김
- 움직이는 역동적 조각성과 가벼움으로 매우 신선한 작품
- 유지·보수만 잘 될 수 있다면, 신선한 시도로 보임
- 작가의 작품 연속선에서 의미가 있고, 보강된 부분이 유효하다면 좋을 것임
- 옥외 환경에 부적합한 재료, 작품의 재질이 내구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보완을 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함
- 작품 가격 과다
- 작품 자체만으로는 기존 작품의 반복으로 보이나 주변 경관이나 시설 요소등의 변화로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미술의 영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좋지만, 일정 기간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나아보임

## □ 11-1번 안건: Vitality

- 구조의 안전성 문제
-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 타 지역 작품과 변별력 부족, 이 공간에 대한 콘셉트적 고민이 약해보임
- 서울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과 너무 유사함
- 역시 이전 작품과 비슷하고 나아진 개념을 발견하기 힘들
- 풍선의 역동성이 배가됨
- 작가적 개성이 아쉽고, 공간 건축과의 부조화, 불안정한 구조 혼재
- 작가의 기존 작품을 연계하여 복합 주거 공간 환경에 어울리는 무난한 작품으로 보임
- 풍선의 형태를 바꾸었다고 해서 이전 심의 결과를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움
- 풍선 개념을 활용하려면 은유적이거나 새로운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할 듯
- 실제 설치된 다른 작품들을 보면 도장이나 마감이 거친 느낌이 듦

## □ 11-2번 안건: 삶은 사랑, 삶은 미소

- 설명적인 구조
- 재미있는 요소와 공공미술의 지속성 부족이 공존
- 귀여운 조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루할 수도 있음
- 작품다운 요소의 재구성이나 해석부족
- 위트가 있고, 친근하기는 하나 아동만을 위한 놀이터 구성을 위한 설치조형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이한 조형물
- 조형적 성격이 있는 인형
- 상업적이며 만화적인 느낌이 강함
- 애매하고 정리되지 않은 동화 같은 느낌
- 다소 산만함. 의도적인 키치스러움이라 하더라도 구성 요소간의 조화가 필요해 보임
- 다양한 연령층이 감상하게 된 주거공간에 매일 보아야 할 작품으로 지나치게 장식적인 작품
-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는 느껴짐, 본인의 조형적 기법으로 풀어나가는 느낌은 중심은 있는 작품
- 캐릭터들의 배치와 공간이 조화롭다고 보기 어렵고 쉽게 와닿지 않음

## □ 12번 안건: Colonna Infinita II

- 다른 장소의 작가 작품들과 변별력이 없어 장소 특정적이지 않음
- 전체적으로 무난하나 지나치게 흡사한 작품이 많아 차별성이 없어 보임
- 다른 공간에 놓인 작가의 이전 작품과 변별력이 부족함
- 본인의 다른 작품보다 약함, 실제 설치되었을 때 작품이 약해보일 것 같음
- 좁은 공간에 넣는 조형물이라는 점에서는 어울리지만, 조형물을 꼭 좁은 공간에 넣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음
- 작품의 완성도나 예술성 좋음. 다만, 설치장소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더 필요함
- 다채로운 면과 수평선의 조화가 돋보이나 조각이 다소 작은 느낌
- 작품 설명을 작가가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작품과 설명이 전혀 다른 느낌
- 비슷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음
- 재료가 주는 웅장함이 약해보임

## □ 13번 안건: Iron space square

- 건축물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시각의 뚫린 공간이 열어주기는 했으나, 무거운 느낌
- 수변의 열려진 공간에 어울리는 개방적인 구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무난하나 유사한 작품 사례가 다소 흔해보임
- 작품에 비해 사이즈가 왜소해 보임
- 미니멀한 형태가 오히려 모티프의 풍부함을 내재한 듯함
- 조각적 밀도와 질감이 느껴지는 작품
- 철 단조 조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니멀한 작품
- 재료와 막직한 느낌의 조형이 중후한 느낌을 주나 두 개체의 배치와 조합이 산만함
- 작품의 육중함에 비해 작품의 개념이 너무 빈약함
- 자연과 대비되는 재료와 형태로 긴장감을 주는 작품

#### □ 14-1번 안건: Darkmatter 2010

- 무난하나 유사한 작품 사례가 다소 흔해 보임
- 유사한 질감을 사용하는 다수의 작가 존재
- 특별한 근거나 장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작가 틀 안에서 변형만 되고 있음
- 익숙한 기법과 익숙한 주제
- 장소와 부조화
- 형태와 색상이 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음
- 무겁고 다소 위협적인 느낌도 듦
- 작품의 의도와 달리 다소 우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임
- 다소 과한 형태와 중앙의 솔리드 요소가 아쉬움
- 스킨의 텍스처와 디테일감이 좋으나 전체적 조형이 어색함
- 조형 수법 자체가 새롭지 않으며 형태적인 완성도도 높다고 볼 수 없음
-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모양이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음

#### □ 14-2번 안건: 시간을 가로지르는 나무

- (권고사항) 통과 작품의 비례를 유지하여 3m 이내의 주물로 제작하되, 평소 작가의 작품과 같이 질감을 유지하여 제작할 것을 권고함
- 형식이 재미있음
- 친근한 조형성이 신선함
- 새로운 조형감
- 작품의 형태나 조형이 흥미로움
- 조형 형태가 공간에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모티프나 요소의 구성도 무난한 작품
- 주제에 대한 일차적 해석이 아쉽고 밀도도 떨어짐
- 본인 작품과 잘 연계된 작품
-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어울리지 않음
- 선인장의 형상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임
- 공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위압적임

### □ 15번 안건: 화합의 물결

- 조형어법이 좀 더 세련되었으면 좋겠음
- 장식성이 작품의 감상을 방해하는 느낌이 듦
- 경쾌함은 있으나 구가 형식적임
- 조형적 개연성이 아쉽고, 작위적인 느낌도 듦
- 조형성이 부족하고 장식적임
- 평이한 형태로 작가 고유의 특징을 느끼기 어려움
- 주제의 관념적 조형성이 다소 상투적으로 보임
- 요소나 구성이 평이하고,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아쉬운 조형물
- 일상적으로 봐왔던 무난하고 평범한 작품

### □ 16번 안건: Moving dream

- 위치변경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변경한 장소에 더 잘 어울리고 시원스러움
- 전체 공간에서 장소가 가지는 의미나 상징성은 적어 보임

###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23개 작품 중 1, 2, 4, 5, 6, 8, 9-2,3, 10, 13, 14-2, 16 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